



삼성증권 광주지점 김태현 지점장은 삼성증권업과 코아로직을 추천종목으로 꼽았다. 김 지점장은 추천사유로 삼성증권업은 국내 조선 4개사중 가장 먼저 올 수주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확대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부러할 전망이다. 코아로직은 멀티미디어 모바일 시장수요의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기 기대되고 매출처 다각화로 단일 매출처에 의한 의존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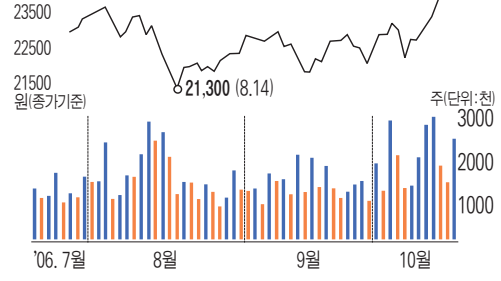
수주 증가세 업종내 최고

멀티미디어 칩 매출 늘어

■ 삼성증권업

고부가가치 LNG 강선을 주로 만드는 조선업체, 조선업체중 처음으로 조선소 건설 및 운영 노하우에서부터 선박 건조용 도면까지 선박건조관련 기술을 통째로 수출해 1천400만달러의 로열티를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몰들어 8개월만에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실적(77억 달러)을 일찌감치 갈아치웠다. 특히 LNG선 10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 드림십(시추선) 4척, 해양 플랫폼 4기 등 고가 선박을 선별 수주해 해당 평균 수주단가가 1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고부가가치선 비중도 업계 최고인 80%에 이른다. 증권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국내 조선업종이 3년치 수주잔고를 가질 정도로 호황이지만 삼성증권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하반기부터 저가 수주분 해소로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 ▲수주증가세가 업종내에서 가장

■ 삼성증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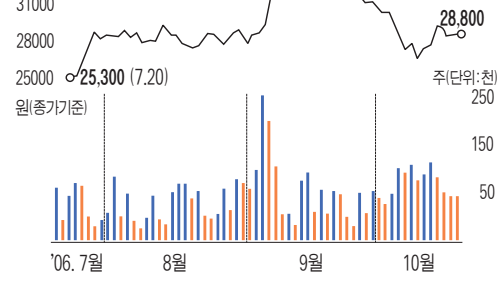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보고있다. 실제로 삼성증권업은 LNG의 매출비중이 올해 30%에서 2008년 40%대를 웃돌고 시추선 비중도 50%에 육박하는 등 고가선박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수익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력인 컨테이너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종합조선업체로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아직 적응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볼수 없다

■ 코아로직

모바일 등 멀티미디어관련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로 카메라폰과 멀티미디어 칩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비중은 모바일 폰의 멀티미디어화에 필수적인 MAP이 75%, 카메라 폰의 핵심부품인 CAP이 25%로 구성되어 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카메라폰이 멀티미디어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마진이 높은 멀티미디어 구동칩의 매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태 코아로직의 구동칩은 빠른 성능과 전력 소모 최소화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즉 최고 사양 휴대폰의 기능에 최적이고 MP3, 카메라, 캠코더, 게임 등에 대응할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휴대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거래처로 확보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코아로직은 현재 삼성전자 E900과 올트라에디션에 장착되는 MAP

■ 코아로직



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도 MAP 출하대수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LG텔레콤 등으로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있어 단일 매출처에 의한 의존성이 해소되며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발전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키아나 모토로라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휴대폰외에 휴대용 게임기, 네비게이션 등을 위한 칩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곡물 대란’ 오나

밀 등 작년비 최고 70% 올라 수급 불균형으로 상승세 지속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국제 곡물 가격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증권가에서 흘러나왔다. 곡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곡물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까지 악화됨에 따라 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22일 SK증권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된 밀과 옥수수, 귀리의 선물가격은 작년 초와 비교해 각각 70%, 55%, 54% 급등했다. 곡물가격의 상승세가 본격화된 올해 9월 초 가격과 비교하면 이들 곡물가격은 대체로 30% 정도 올랐다. 같은 기간 에너지와 금속, 농산물 등 19개 상품으로 구성된 로이터.제프리 선물가격 지수인 CRB지수는 15% 하락한 반면 옥수수와 밀, 대두로 구성된 CRB 곡물지수는 25% 급등했다. 송재혁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곡물수요 증가와 재고감소 영향으로 곡물

가격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곡물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기후조건 악화로 인해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직 곡물과동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상악화로 또 다시 작황이 나빠진다면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태평양 페루 부근 적도해역의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흐름에 영향을 미쳐 가뭄과 홍수, 한파 등 전세계에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시장의 투자매력이 감소한 가운데 가격상승으로 투자매력이 커진 곡물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곡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디스플레이도 세계 ‘톱’으로” 이근희 회장(왼쪽 두번째)이 김순택 삼성SDI 사장(왼쪽 세번째), 이학수 삼성전...

이근희 회장(왼쪽 두번째)이 김순택 삼성SDI 사장(왼쪽 세번째), 이학수 삼성전...

축·수산물 항생제 사용 ‘심각’

국감자료, 돼지고기·우유 등 기준치 이상 검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수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를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항생제 사용은 축·수산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부이긴 하지만 돼지고기와 우유, 뱀장어 등에서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

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0.1mg/kg이나 일부 지역에서 0.11mg/kg이 검출됐고, 우유도 기준치가 0.2mg/kg이나 0.27mg/kg 나온 것이 있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과다 투여했을 때 이과 뼈가 황갈색으로 변할 수 있고 태아의 골격 발달을 지연시켜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닭고기와 광어 등에서는 식중독을 야기하는 변종인 캄피로박터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엔로플로사신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 축·수산물에서 기준치가 넘는 각종 동물 항생제가 검출됐다. 안 의원은 “평소 섭취하는 식품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항생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인체의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더 독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항생제 과다 축·수산물을 일단 폐기처분한 뒤 6개월 이상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상반기 경기 저점 도달”

재정경제부 분석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으로 빠져들었다는 진단이 나온 가운데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경제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순환곡선은 상반기중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핵실험의 여파에 따라서는 저점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에서 “올해 3·4분기와 4·4분기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 1·4분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항윤 연구위원은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경기는 완만히 하락해 내년 1·4분기나 2·4분기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이 6.1%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 같은 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도복권 (제203회) 당첨번호, 등위, 당첨금(원) 등 정보

팝콘복권 (제2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등 정보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채용 공고 목록 (업종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런 학과가 좋다”

기업 채용 업종별 선호 학과

이공계열은 특정업종에서 특정학과를 선호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수요는 있지만 인기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가 상장기업 325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어떤 학과를 가장 필요로 하고 많이 찾는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응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업종별 선호 학과다. ▲건설=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를 많이 찾는다는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기계공학과와 전기공학과가 각각 10.0%, 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가 2.5%였다. ▲기계·철강·조선·중공업= 기계공학과(25.0%)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학과로 꼽았다. 금속공학과(23.4%)도 많이 찾았다. ▲석유화학= 역시 화학공학과를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47.2%로 압도적이었다. 화학공학과와 기계공학과도 11.1%의 비율로 많이 찾았다. ▲식음료= 특별히 필요하거나 찾는 학과가 없다는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유통무역= 경영학과가 22.2%로 가장 높았다. 다소 특이하게 컴퓨터공학과를 꼽은 응답(11.1%)도 있었다. ▲자동차= 기계공학과를 꼽은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다. 전자공학과와 금속공학과가 10.3%, 화학과도 각각 3.4%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전자공학과(32.6%)와 전기공학과(21.1%)가 가장 많았다. 기계공학과가 15.8%로 뒤를 이었고 화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나란히 2.1%씩 뽑혔다. ▲정보통신= 컴퓨터공학과(19.1%)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자공학과와 전산학도가 각각 10.6%, 전기공학과, 정보통신학과, 경영학과도 6.4%씩 뽑혔다. ▲제약= 화학과(24.3%), 약학과(18.9%)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찾는다고 응답했고, 생물학과도 8.1%로 많이 찾았다.

한은 휴직자 最多

국감자료, 인력 방만 운용 입증

한국은행의 휴직자 비율이 주요 국책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방만하게 인력을 운용하는 것을 볼 때 한은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한국은행 국감자료에 앞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비유학·입영휴직·임병휴직·청원휴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한국은행 직원은 총 56명으로 총원 2천316명 중 2.42%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은행의 0.66%, 기업은행 1.41%, 수출입은행의 0.6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여타 국책은행의 휴직자는 임병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필수 불가결한 사유인데 반해 한국은행의 휴직자는 사비유학에 집중되는 특성을 띠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외에 학술연수자 77명, 정부부처 파견 34명 등 총 167명(7.2%)이 한국은행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연수자의 경우도 산업은행의 31명, 기업은행의 34명, 수출입은행의 3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산업은행의 총원은 2천132명, 기업은행은 8천752명, 수출입은행은 637명이다. /연합뉴스

무역클레임 작년 15조

전체 무역액의 2.9%서 발생

지난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클레임이 약 15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무역업체의 클레임 발생 현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무역클레임은 전체 무역거래 건수의 3%, 전체 무역액의 2.9%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무역액 약 522조원 중 2.9%인 15조원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연간 30만달러 이상 무역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1천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업체가 클레임을 합의해결한 비율은 62.7%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클레임(37.3%)은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중도포기하는 경우(63.9%)가 많았다. 이처럼 중도포기해 받지 못하는 클레임 미수금액은 지난해 1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무역업체의 42.7%가 최근 3년간 무역클레임을 1번 이상 경험하였고 수출업체는 44.8%, 수입업체는 42.4%가 클레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클레임이 많이 발생한 상대국은 중국(25.9%), 미국(22.6%), 일본(20.3%) 등으로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가 주를 이뤘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